경륜 기대주들이 몰려온다…세대교체 붐

‘189cm의 불도저’ 정해민, 편견 깬 젊은피

‘큰 키는 경륜 어렵다’ 뒤집고 성장세
지구력 바탕 선행 등 모든 작전 소화
1기 정해모 아들…임채빈과 2강 예상
김포팀 정정교·금정팀 김희준도 주목

경륜 세대교체를 이끌며 주목받고 있는 22기 정해민, 21기 정정교, 22기 김희준(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난해 가을부터 동계훈련을 통해 기량을 닦아온 각 팀의 기대주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2022년 시즌은 경륜의 세대교체에 가속도가 붙었다.

경륜 세대교체 붐을 이끄는 주역은 ‘불도저’ 정해민이다. 189cm의 키에 100kg 넘는 육중한 체구를 자랑하는 정해민은 ‘큰 키는 경륜 선수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요즘 돋보이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데뷔 당시 539위로 출발해 이듬해인 2017년 33위, 2018년 22위, 2021년 9위로 올라서며 상위 10인방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는 총 순위 3위까지 올랐다. 2022년 시즌 접어들면서 연대율 100%를 기록하며 3강 굳히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정해민은 1기 정해모 선수의 아들로 2세 경륜선수다. 정해민의 장점은 탄탄한 지구력을 베이스로 선행, 젖히기, 추입까지 모든 작전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선 경륜의 스타인 정종진, 조호성, 홍석한 등과 비슷한 행보여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정해민이 올해 임채빈과 2강 체제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해민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기대주로는 김포팀의 21기 정정교, 금정팀의 22기 김희준, 세종팀의 23기 김관희가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선수는 김포팀의 정정교다. 2021년 시즌을 거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입과 젖히기에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경주운영도 수준급이다.

김포팀의 수장인 정종진이 일찌감치 팀의 차세대 주자로 낙점했을 정도로 탄탄한 기본기를 지니고 있다. 행운이 따라주기는 했지만 2021년 그랑프리 준우승을 차지할 만큼 성장속도가 가파르다. 총 순위 9위. 강한 근성을 바탕으로 단점 보완에 매진한다면 연내 5인방 진입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경남권에 세대교체의 바람을 일으킨 22기 김희준도 지난해부터 기량이 급성장하고 있다. 과감한 경주운영과 뛰어난 순간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데뷔 초 훈련 도중 허리부상으로 슬럼프를 겪기도 했지만 허리부상이 회복되면서 성적도 상승세를 탔다. 경남권을 대표했던 이현구, 박병하, 성낙송 등이 부진한 상황에서 김희준의 상승세는 경남권 팀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황인현의 뒤를 이어 세종팀의 새 리더로 급부상한 23기 김관희도 지구력과 파워, 경주에 임하는 마인드가 2021년보다 확실하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특히 400~500m를 질주하는 폭발적인 선행은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최근에는 경주운영까지 업그레이드되면서 잇따라 강자들을 격파하고 있다.

이밖에 김포팀의 공태민, 수성팀의 김민준, 미원팀의 양승원, 세종팀의 김범수 등도 올해 활약이 기대되는 신진 세력들이다. 앞에서 소개한 선수들 못지않은 지구력과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

‘최강경륜’의 설경석 편집장은 “그동안 벨로드롬을 주도했던 87년생들이 주춤하면서 빠르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21기, 22기, 23기들이 세대교체의 중심에서 과거의 강자들을 밀어내고 특선급 신흥 강자로 올라서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고배당 이변 새 바람, 14~16기 경정 신예들

11회차 이수빈 2위 쌍승식 153.0배
13회차 송효범 우승 삼쌍승 630.3배

경정은 미사리에서 원년부터 수많은 경주를 소화한 선배들이 레이스 판도를 주도해 왔다. 하지만 최근 14, 15, 16기 신예들이 약진하면서 깜짝 입상과 함께 배당을 선사하고 있다.

최근 열린 3주간의 경주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이 뚜렷하다. 3월16일~17일 11회차는 수요일 첫 경주부터 예상을 깨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 전에는 3번 서화모를 중심으로 2번 김강현과 4번 한진이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하지만 1주 2턴 마크 시 16기 5번 이수빈이 안쪽 공간을 파고들면서 깜짝 2위를 차지했다. 후착권에서 예상못한 결과가 발생하면서 쌍승식 153.0배의 배당이 나왔고 삼쌍승식은 무려 911.9배를 기록했다.

12회차(3월 23일~24일)에서도 이변은 이어졌다. 2일차 1경주는 1번 박준현과 2번 우진수, 4번 최광성의 삼파전으로 평가됐다. 0.08초의 빠른 스타트를 끊었던 2번 우진수가 주도권을 잡았으나 바로 옆자리의 15기 박민영이 추격을 뿌리치고 동반입상에 성공하며 쌍승식 49.0배를 기록했다.

이어진 5경주도 흐름이 뒤집혔다. 당초 2번 이택근과 4번 김완석의 우승 경쟁 구도로 예상됐으나 1코스의 16기 1번 오상현이 0.15초의 빠른 스타트로 인빠지기에 나서 초반 선두로 올라섰다. 노련미 부족으로 아쉽게 2주 1턴 마크에서 2번 이택근에게 역전을 허용했으나 결승선까지 2위를 지켜냈다. 코스가 유리하고 모터가 받쳐주면 막내들도 언제든지 일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경주 결과였다.

지난주 13회차도 신예들의 선전이 이어졌다. 1일차 2경주는 1번 류석현의 우세 속에 후착 찾기 양상이었는데 가장 불리한 코스에 배정받은 15기 6번 정승호가 0.08초의 빠른 스타트를 앞세운 붙어돌기로 선배들을 제치고 입상했다. 이어진 3경주는 안쪽 코스 선수들의 스타트가 늦은 사이 축으로 잡혀 있던 4번 송효석이 휘감기에 나섰으나 5코스의 15기 송효범이 휘감아찌르기로 역습하면서 깜짝 우승을 했다. 13회차 최고배당인 쌍승식 147.4배, 삼쌍승식 630.3배를 기록했다.

이밖에 2일차 6경주 인기순위 하위권이던 14기 3번 김은지가 2착으로 입상에 성공했고, 14경주는 15기 2번 송효범이 한 번 더 2착을 기록했다.

임병준 쾌속정 예상분석 전문가는 “이제는 출주표가 나오면 신예들이 유리한 코스에 배정 받았는지, 모터 성능이 괜찮은지를 먼저 체크해야할 정도로 존재감이 커졌다”며 “아직 결정력이 부족해 우승 빈도가 낮고 2, 3착에 그치는 경주가 많지만 경기력이 제자리인 선배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공격적으로 신예 입상을 예상하는 전략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2일 화천생활체육종합경기장에서 열린 화천KSPO의 홈개막전 하프타임 때 진행한 은퇴식.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WK리그 개막…화천KSPO 11차례 홈 경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 스포츠단 소속 화천KSPO 여자축구단은 2일 홈구장인 화천생활체육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경주한수원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2022 WK리그(한국여자실업축구리그)를 시작했다. 2011년 창단한 화천KSPO 여자축구단은 올해 연고지 화천군에서 11차례 홈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에는 정지연, 위재은, 최지나 등이 새로 가세했고 쓰리백 수비의 핵심인 맹다희와 공격수 문은주가 기대주로 꼽히고 있다. KSPO 여자축구단은 2일 홈 개막경기 하프타임 때 이새움, 곽미진과 이정은 의무트레이너의 은퇴식도 진행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명시와 청소년 지원 협약

이맹규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오른쪽)과 서일동 광명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3월 31일 광명스피돔에서 광명시청소년재단, 재단 소속 청소년센터 7개 기관 등과 광명지역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광명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각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루어졌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앞으로 광명스피돔 시설(인프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을 펼친다. 또한 광명시청소년재단과 소속 각 센터가 청소년의 문화, 체육, 복지 향상 등을 위해 실시하는 정책적 노력과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경주사업총괄본부와 재단은 지역 청소년 활동지원을 위한 협업관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0108-중-38478호

귀두확대 시술로 조루증 치료!!

주사로 귀두확대와 동시에 음경확대 가능!

10분 정도의 간편한 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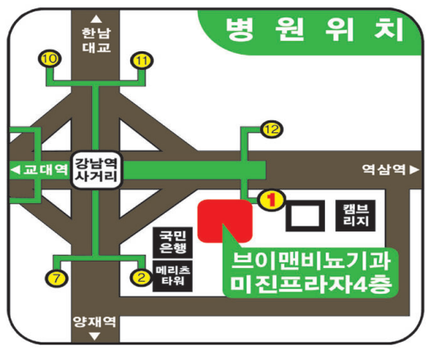
비뇨기과 전문의 최종근 원장

브이맨비뇨기과 최종근 원장은 다년간 조루증 치료에 전념하여 오랜 해외 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학식으로 조루증 치료에는 귀두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귀두확대가 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이용하여 귀두와 음경에 히알룬산을 주입하는 확대술이 효과적이다. 이것이 바로 비수술적확대법이며 이는 주사로 간단하게 필러를 음경과 귀두에 주입하여 확대시키는 간편한 시술법이다.

이 시술법은 음경과 귀두가 확대되는 효과와 동시에 귀두의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이 있어 사정이 지연되어 조루증에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일석이조의 시술법이다. 부작용으로는 약한 염증이나 일부 흡수가 될 수 있다.

▶국소마취로 시술시간은 10분!
▶시술후 술, 샤워는 당일부터 가능!
▶성관계는 일주일 후부터 가능!
▶당일부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



MAN UROLOGY CLINIC 브이맨비뇨기과 02)3469-1900 www.vmanclinic.com 강남역 1번출구 바로옆